

 <b>보건복지부</b>	<b>보 도 참 고 자 료</b>			
배 포 일	2020. 3. 12. / (총 2대)			
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관리팀	팀 장 담 당 자	양 윤 석 김 보 람	전 화	044-202-3720 044-202-3617

##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을 위한 병원장 간담회 개최

- 전국 상급종합병원장, 대학·종합병원장 권역별 간담회 개최,  
병상 확충 및 진료현장 의견수렴 -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)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과 진료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장, 대학병원장 및 종합병원장 대상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병원장 간담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, 상급종합병원과 대학·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3월 12일부터 17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(보건복지부 장관)과 1총괄조정관(보건복지부 차관) 주재로 연이어 네 차례 개최한다.

### < 병원장 간담회 개최 일정 >

회차	대상(개)	일시	주재
1	수도권 상급종합병원(18)	3.12.(목) 14시, 서울	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
2	수도권 대학·종합병원(23)	3.13.(금) 14시, 서울	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
3	비수도권 상급종합(14)	3.16.(월) 14시, 세종	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
4	비수도권 대학·종합병원(20)	3.17(화) 14시, 세종	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
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·도별로 환자관리반을 설치토록 하여,
  - ① 환자 관리반(의사 포함)의 신속한 환자 분류 작업, ② 중증도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또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이송, ③ 중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함으로써 중증환자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체계를 갖추었다.
- 환자 치료체계 구축 노력과 함께, 중증환자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을 추진해왔으며, 지난 2월 28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병상 확충을 협의하였으며, 3월 중 254병상을 추가 확충하기로 하였다.
- 이번 병원장 간담회에서는 국립대병원 외 중증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, 대학병원 등 전국 75개 병원을 대상으로 중증환자 병상 추가확충 방안을 논의하고,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의료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을 듣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.
- 박능후 1차장은 “중증환자가 신속히 적정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, 이를 위해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, 종합병원의 병상 확충이 절실한 상황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  - 또한 “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거나 코로나19 관련 현장에서 의료지원을 수행 중인 의료인들,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지원 전담병원으로 활동하는 기관 등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한다”고 전했다.
  - 아울러 “정부는 의료기관의 병상 확충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3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,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한 손실 보상도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.”고 밝혔다.